

해방기(1945~48) 북한 문예지에 게재된 대표 단편소설 연구*

—인물 형상화의 경직성과 유연성을 중심으로

오 태 호**

요약

이 글은 해방기(1945~1948) 북한 문예조직의 기관지인 『문화전선』과 『조선 문학』, 『문학예술』에 게재된 단편소설 중 이기영의 『개벽』, 이북명의 『노동일가』, 이태준의 『첫 전투』 등 3편의 대표작을 선별하여 ‘인물 형상화’를 중심으로 북한 문학의 문예이론과 텍스트의 미학적 균열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인물의 입체성을 중심으로 북한문학에서 복원되어야 할 대목의 필요성을 논구함으로써 해방기 북한문학의 유연성과 경직성을 함께 고찰하였다. 결국 사건 속에서 살아 있는 인물들의 내면 풍경을 집적함으로써 플롯의 개연성 확보를 통해 작품 내적 리얼리티를 확보하는 입체적 유연성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이기영의 『개벽』은 ‘토지개혁’을 둘러싼 인물들의 개성적 성격을 입체적으로 포착하면서 지주 황주사의 불안감을 위시한 내면 풍경에서부터 ‘천지개혁된 세상’에 대한 원초적 불안과 기대를 유동하는 소심한 내면 풍경에 이르기까지 실감나게 묘사된다. 이북명의 단편소설 『노동일가』는 ‘중산 경쟁을 다룬 노동소설’로서 북한에서 고평하는 ‘고상한 애국심과 헌신성을 지닌 인간형’으로서의 친구보다 ‘부정적 인물인 달호의 동요하는 심리’가 생생한 리얼리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수작이라고 판단된다. 분단 이후 ‘빨찌산 문학의 기원’에 해당하는 이태준의 『첫 전투』는 1948년 5월 남한의 5.10 단독선거 이후 강원도의 한 지서를 습격한 유격전을 추적하고 있는 소설로서, 대장 판돌의 동요하는 내면과 함께 반골 기질의 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46623)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

동무, 유격대 막내인 셋째의 형상이 자연스럽게 형상화되면서 3일간의 유격대 활동이 생생하게 포착된 작품이다.

이 세 작품의 공통된 특성은 긍정적 주인공들과 함께 부정적 인물들의 심리적 동요를 포착하면서 입체적 성격의 인물로 묘사함으로써 작품의 생동감과 리얼리티를 생생하게 살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플롯의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체문학’으로 획일화되기 이전 북한문학의 미학적 원리를 보여준다. 특히 향후 수령형상문학과 당문학을 중시하는 북한문학에서 살려써야 할 대목으로 판단된다. ‘반동적 부르주아 사상의 잔재’라는 퇴폐 미학의 낙인이 아니라, 복잡다단한 인간의 내면풍경을 정밀하게 탐색하는 문학적 상상력을 복원하기 위해 되살려야 할 인물들의 풍부한 심리묘사인 것이다.

주제어: 해방기, 북한문학, 이기영, 「개벽」, 이복명, 「노동일가」, 이태준, 「첫 전투」

| | |
|-----------|---|
| <p>목차</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론 2. 입체적 인물의 생생한 리얼리티 재현 - 이기영의 「개벽」(『문화전선』 창간호, 1946. 7) 3. 부정적 인물의 이중성 포착 - 이복명의 「노동일가」(『조선문학』 특대창간호, 1947. 9) 4. 긍정적 주인공의 심리적 동요 형상화 - 이태준의 「첫 전투」(『문학예술』, 1948. 12) 5. 결론 |
|-----------|---|

1. 서론

본고는 해방기(1945~1948) ‘북한 문예조직’¹⁾의 기관지인 『문화전선』과

1) 북한의 문예조직은 엄밀하게 따지면 ‘북조선예술총연맹’이 1946년 3월 25일 조직되고, 1946년 10월 ‘북조선예술총연맹 전체 대회’가 개최되면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조직이 개편된다. 따라서 『문화전선』 1집은 ‘북조선예술총연맹’의 기관지이고, 『문화전선』 2~5집은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기관지이고, 1947년 9월 창간되는 계간지 『조선문학』 두 권은 ‘북문예총’ 산

『조선문학』, 『문학예술』에 게재된 단편소설 중 대표적인 작품을 선별하여 북한 문학의 문예이론과 텍스트의 미학적 균열 양상을 분석하고자 작성된다. 이때의 대표성은 해방기에 동시대 사회주의 현실을 주제로 다룬 작품 중에서 북한 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해방기 북한문학의 대표작’을 추출한 것이다. 그리하여 ‘해방기의 토지개혁’을 다룬 최초의 소설인 이기영의 『개혁』, ‘증산 경쟁의 노동문제’를 다룬 최초의 소설인 이복명의 『노동일가』, 분단 이후 ‘최초의 빨찌산 투쟁’을 다룬 문학인 이태준의 『첫 전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의 ‘최초’는 첫째로 해방기 북한 문예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동시대 북한문학에 대한 필자의 평가에 기인한 판단²⁾이며, 둘째로 동시대 잡지에 기고된 평론과 논설을 통한 판단이며, 셋째로 1950년대 『조선문학통사』(1959) 등의 문학사적 평가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해방기(1945~48)는 미국과 소련에 의한 한반도 분할 군정기로서 분단 초기의 맹아적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다시 해방 직후 식민지적 질서로부터 벗어나면서 다양한 문학이 공존하는 1945~46년과, 1946년 12월 소련의 ‘즈다노비즘’을 참조한 ‘『응향』 사건’을 거치면서 1947년 이후 단일하고 획일적인 문학단체의 통합과 함께 ‘당의 문학’으로 수렴되기 시작하는 두 시기로 구분된다.³⁾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양한 리얼리즘 논의를 거쳐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표방하게 되는 시기이다. 결과적으로 북한문학은 ‘『응향』 사건’⁴⁾을 거치면서 1947년 이래로 부르주아 문학을 ‘퇴폐미학’

하 ‘북조선문학동맹’의 기관지이고, 1948년 4월 창간되는 월간지 『문학예술』은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기관지이다. 이후 1953년 10월 창간되는 월간지 『조선문학』은 ‘조선작가동맹’의 기관지이다.

- 2) 필자는 ‘남북문학예술연구회’의 회원으로 20명 내외의 동학들과 함께 1946년 『문화전선』 창간호 이래로 『조선문학』, 『문학예술』 등의 북한 태동기의 문예지를 함께 1960년 『조선문학』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왔다. 이 논문은 그 연구의 연장선에서의 산물이다.
- 3) 김성수, 『통일문학 담론의 반성과 분단문학의 기원 재검토』, 남북문학예술연구회 편, 『해방기 북한문학예술의 형성과 전개』, 역락, 2012. / 유임하, 『북한 초기문학과 ‘소련’이라는 참조점-조소문화 교류, 즈다노비즘, 번역된 냉전논리』, 남북문학예술연구회 편, 『해방기 북한문학예술의 형성과 전개』, 역락, 2012.

으로 낙인찍어 배격하면서 프롤레타리아문학 중심으로 획일화된 도식화가 진행된다. 특히 ‘고상한 사실주의’⁵⁾를 전유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는 창작방법론을 확정하면서 긍정적 인간형을 기술할 것이 강조된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동시대와 더불어 후대에도 강조되는 작품은 『문화전선』 창간호(1946. 7)에 게재된 리기영의 단편소설 『개벽』과 계간지 『조선문학』 특대창간호(1947. 9)에 게재된 리북명의 중편소설 『로동일가』를 들 수 있다.⁶⁾ 이 두 작품은 각각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강조하는 ‘토지개혁’과 세계노동절인 5.1절을 앞두고 ‘공장 노동자들의 증산경쟁운동’을 소재로 활용하면서 해방공간의 북한 사회 현실을 리얼하게 형상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특히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의 입체적 형상

4) 1946년 12월 20일 ‘북문예총’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건국사상 총동원 운동, 고상한 리얼리즘의 대두, 소련의 영향 속에서 『옹향』 시집에 실린 시들을 ‘반동적이고 퇴폐적인 시’로 규정하면서 당문학적 성격을 공고히 하게 되는 사건으로, 남북한 문학의 결절점에 해당하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다.(오태호, 『“옹향” 결정서’를 둘러싼 해방기 문단의 인식론적 차이 연구』, 『어문론집』 제48집, 중앙어문학회, 2011. 11, 37-64면.)

5) ‘고상한 사실주의’는 1947년 김일성의 신년사를 계기로 동년 1월 북문예총 제1차 확대상임위원회의 결정에서 ‘고상한 사상과 예술상’을 천명한 뒤 한국전쟁기에 이르기까지 긍정적 주인공론에 기초한 혁명적 낭만주의로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가까운 창작방법론이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사회주의 사실주의’로 개명되면서 1960년대 ‘주체 사실주의’ 이전 북한 사회의 유일한 창작방법론에 해당한다.(오태호, 『해방기(1945-1950) 북한문학의 ‘고상한 리얼리즘’ 논의의 전개 과정 고찰』 『문화전선』, 『조선문학』, 『문학예술』 등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6호, 우리어문학회, 2013. 5, 319-358면.)

6) 북한문학사에서 ‘평화적 민주건설 시기(1945-1950)’의 문학 중 대표작으로 거명되는 단편소설로는 첫째 민주개혁 관련 소설로 이기영의 『개벽』과 『땅』, 한철야의 『마을 사람들』 등, 둘째 세조국건설에서 인민들의 투쟁을 다룬 소설로 한철야의 『탄갱촌』, 이북명의 『노동일가』, 황건의 『탄맥』 등, 셋째 김일성 찬양 소설로 한철야의 『혈로』, 『개선』, 천청송의 『유격대』 등, 넷째 조소 친선을 다룬 소설로 한철야의 『남매』, 이춘진의 『안나』, 김사량의 『칠현금』 등, 다섯째 남조선 인민의 혁명투쟁을 다룬 소설로 이갑기의 『요원』, 이동규의 『그 전날 밤』, 박태민의 『제2전구』 등을 들 수 있다.(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현대문학편』, 사회과학출판사, 1959(인동, 1988) 참조.) 이 논문에서는 첫째에 해당하는 이기영의 『개벽』과 둘째에 해당하는 이북명의 『노동일가』, 다섯째 부류에 해당하는 이태준의 『첫 전투』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셋째와 넷째 부류는 연구자가 이미 다른 논문에서 논의를 개진한 바 있기 때문이다.

화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 두 작품과 다르게 해방기를 대표하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의 호평을 받지만 사후에 문학사에서 배제되는 작품으로는 리태준의 『첫 전투』를 들 수 있다.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기관지인 『문학예술』(1948. 12)에 게재된 이 작품은 ‘빨치산 문학의 기원’⁷⁾으로서 ‘유격부대’의 첫 전투를 둘러싼 풍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북한문학의 지도 방향을 따른 작품이지만, 작품의 성과 여부와는 별도로 결과적으로 ‘이태준’⁸⁾이 1953년 ‘반동작가’로 낙인찍히면서 문학사적 배제를 당하게 된다.

세 작품에 대한 동시대의 평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리기영의 『개벽』은 동시대에도 “토지개혁의 승리를 주제로 하여 하나의 전형적인 인간을 창조한 거작”⁹⁾으로 평가받으며 “정히 우리 문단의 크다란 수확이 아닐 수 없는 일”로 고평받는다. 리북명의 『로동일가』도 동시대에 “해방후 두 번째 맞이하는 5.1절을 앞두고 홍남공장의 로동자들의 증산경쟁운동을 전개”하면서 주인공 김진구가 “증산경쟁운동에서 모범적 선봉대가 되었으며 모범로동자로 5.1절의 표창을 받게 되는 것”과 그의 아내가 “능령천 개수 공사에서 스타하노비츠적 활동으로서 모범일꾼의 칭호를 받게 되는 것”¹⁰⁾을 그린 걸작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리태준의 『첫 전투』 역시 “내용과 형식이 다소 분리된 감이 있으나 남조선 빨치산 투쟁을 취급한 성과 있는 작품의 하나”¹¹⁾로 동시대에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태준은 1953년

7) 김윤식, 『빨치산 문학의 기원』, 『한길문학』 1990. 11, 270-286면.

8) ‘리기영, 리북명, 리태준, 로동일가’ 등은 북한식 표기이고, ‘이기영, 이북명, 이태준, 노동일가’ 등은 남한식 표기이다. 북한의 입장이나 관점을 충실히 드러내고자 할 때는 북한식 표기를, 필자의 해석이나 관점 등 텍스트주의적 입장을 강조할 때는 ‘남한식 표기’로 작가명과 작품명을 표기한다.

9) 안함광, 『북조선민주문학운동의 발전과정과 전망』, 『조선문학』 창간호, 문화전선사, 1947. 9, 275면.

10) 한식, 『노동계급과 문학-5.1절을 맞이하여』, 『문학예술』, 문화전선사, 1950. 5, 16면.

11) 홍순철, 『해방후 4년간 문학예술의 총화와 금후 발전을 위하여』, 『문학예술』, 문화전선사, 1949. 8, 22면.

반종과 투쟁 이래로 ‘반동작가’로 호명되며 문학사에서 배제된다. 즉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포화 속에서 열렸던 1952년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결정 정신을 받드는 반종과 투쟁을 통하여 우리 문학 대렬 내에 기여 든 미제의 고용 간첩 립화와 반동작가 리태준, 김남천 등을 폭로 분쇄”¹²⁾하였다면서 1953년 이래로 문학사적으로 제거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기영의 『개벽』에 대해 1930년대 사회주의 리얼리즘과의 비교 속에 ‘수령 형상으로 전유된 텍스트성’¹³⁾을 주목한 논의, 개인의 도덕과 집단적 도덕 규약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당대 토지개혁 서사의 전망’을 윤리적으로 검토한 논의¹⁴⁾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복명의 『노동일가』에 대해서는 이미 ‘교양되어 있는 자와 교양되어야 할 자를 구분하여 성격을 대조적으로 형상화한 논의¹⁵⁾’, ‘프로파간다 담론’을 중심으로 새 조국 건설에 앞장서는 노동자들의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 찬양의 모습 등을 다룬 논의¹⁶⁾ 등이 이어진다. 이태준의 『첫 전투』에 대해서도 ‘빨치산 문학의 기원’과 함께 ‘멜랑콜리’로서의 고유성을 분석한 논의¹⁷⁾, ‘48년 질서’ 속에서 당 문학의 기사 역할을 수행했던 이태준의 시각을 조망한 논의¹⁸⁾와, 원작과 개작본의 비교 속에 ‘원작의 고유성과 심미성’을 주목한

-
- 12) 윤세평, 『해방후 조선문학 개관』, 『해방후 우리문학(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5-79면.
- 13) 이인표, 『해방기 북한문학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전행’을 ‘수령의 형상’으로 전유한 방식의 일면 고찰 : 이기영의 고향(1933)과 『개벽』(1946)의 양식 비교를 경유하여』, 『현대문학의 연구』 64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2, 251-283면.
- 14) 하신애, 『개혁의 맹점(盲點)과 도덕적 공동체의 부재(不在) - 해방기 북한 문학의 토지개혁 형상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84집, 국제어문학회, 2020, 3, 325-349면.
- 15) 최강미, 『교양되는 북조선 - 1940년대 후반 북한소설 『개벽』, 『로동일가』, 『소낙비』에 투영된 근대성 이미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44집, 상허학회, 2015, 6, 91-137면.
- 16) 김현생, 『이복명의 노동문학과 프로파간다의 담론 : 『출근정치』와 『로동일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105-131면.
- 17) 배개화, 『이태준, 남로당 빨치산 문학의 기원 - 그 미학적 특징과 정치적 논쟁점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71집, 국어국문학회, 2015, 6, 473-503면.
- 18) 유임하, 『월북 이후 이태준 문학과 ‘48년 질서’ - 『먼지』(1950)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39집, 상허학회, 2013, 9, 13-42면.

논의¹⁹⁾ 등이 이어진다.

이기영과 이복명, 이태준 등의 세 작품은 해방기 북한문학의 표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갖는다. 이제 이 세 작품을 향해 진행된 다양한 평가와 더불어 작품의 내적 특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해방기 북한문학을 대표하는 단편소설의 특성을 추출함과 함께 남북한 문학의 통합문학사적 가치를 전제로 북한문학의 특수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특히 인물 형상의 유연성과 경직성을 중심으로 작품의 미학적 특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북한문학이 '주체문학론'으로 획일화되기 이전에 작품 속 공간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생동하는 인물들이 활보함으로써 플롯의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논거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은 북한문학이 '수령형상문학'과 '당문학'으로 획일화되기 이전에 리얼리즘 미학의 핵심 원리인 '세계관에 대한 리얼리즘의 승리'와 함께 '세부 묘사의 진실성'을 내장하고 있었음을 논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해방기 문예지에 게재된 원작을 토대로 분석함으로써 사후적인 시각으로 재단하는 문학사적 평가가 아니라 동시대적 유연성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빨섬의 문학'으로 일관된 북한문학의 여집합을 복원하고, 한반도 문학으로서 남북한 문학의 합집합이라는 외연을 확장하는 유의미한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19) 강진호, 『이태준 소설의 개작 연구 - 해방 후 소설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46집,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9, 8, 187-225면.

2. 입체적 인물의 생생한 리얼리티 재현 -리기영의 「개벽」(『문화전선』 창간호, 1946. 7)

1) 해방 직후 북한의 토지개혁 풍경의 리얼리티

이기영의 「개벽」은 동시대뿐만 아니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문학사의 정전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특히 “토지개혁의 결과 땅에 대한 세기적숙망을 실현하게 된 농민들의 감격과 기쁨, 환희를 격동적으로 반영하고 그들의 사상의식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전환을 심오하게 반영한 해방 후 농촌주제의 첫 작품으로서 문학사적 의의”²⁰⁾가 고평된다.

작품 자체는 해방 직후인 1946년 3월 “토지개혁 법령이 발표”된 며칠 뒤의 시점의 풍경에서 시작하여 소작농인 원침지네와 지주 황주사의 심리 대비 속에 해방 직후 북한 사회의 표정을 잘 포착하고 있는 텍스트에 해당한다. 토지개혁 법령 발표 며칠 뒤 11시에 읍내에서 ‘기념행사’를 거행한다는 소식에 수만 명의 농민대중이 지령을 받고 몰려든다. 각 동에서 준비해온 표어에는 “오직 받가리를 하는 사람만이 토지를 가질 수 있다”, “우리 조선의 영웅 김일성장군 만세!” 등이 씌어져 있고, 수많은 군중 행렬에서는 “우리들 농민에게 토지를 주신 김일성 장군 만세!”, “북조선 인민민위원회 만세!”, “조선 자주독립 만세!” 등의 만세 구호와 함성이 이어진다. 표어와 구호에서 드러나듯 ‘경자유전의 원칙’과 함께 ‘김일성’이 해방 초기에 이미 북한에서 ‘북조선의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장악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농민들은 일제 말기에 이어지던 ‘농촌의 황폐화’와 함께 해방된 뒤에도 비참한 현실 생활이 이어지던 중 토지 분배 소식이 들리자 ‘환천희지(歡天喜地)’가 되어 만세를 부르게 된 것으로 그려진다. 작가는 농민들과 소

20) 오정에·리용서, 『조선문학사10-해방후편(평화적민주건설시기)』, 사회과학출판사, 1994, 144면.

작인들의 얼굴과 행동에서 감격의 표정이 묻어난다면서 일종의 축제와도 같은 시위가 가장행렬과 함께 이루어지는 모습을 “파노라마를 전개한 듯 장엄한 광경”과 함께 “전무후무한 일대 시위운동”을 연출하는 것으로 포착한다. 하지만 행렬을 바라보는 시민대중들이 아직 “어떤 공포감”에 놀려 “공박관념(恐迫觀念)”이 자리한다면서, “토지를 농민에게 값없이 나누어준다”는 말을 고급에 처음 듣는 말이기에 정말로 실현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대목은 비판적 리얼리스트로서의 작가적 역량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렇듯 시위 행렬 참가자와 행렬 바라보는 일종의 군중을 구분하여 포착함으로써 해방기 북한의 표정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부분이 작가의 리얼리즘적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지주 황주사의 내면 풍경

열광하는 농민대중과는 다르게 지주계급의 전형인 황주사는 침통한 기색 속에 “이놈들 어디 보자”는 식으로 거리에 나선다. 황주사에게 시위 군중의 모습은 “독가비 노름판”처럼 느껴지고, ‘낮에 나온 도깨비’들을 보면서 황주사는 자신이 도깨비에 홀린 거나 미친 것은 아닌지 반문하며 몸을 떠난다. 더구나 몇 달 전에 굶어죽지 않기 위해 돈 200원을 빌린 원침지네 식구들까지 연장을 들고 시위 행렬에 동참한 모습을 본 황주사는 얼이 빠지는 것으로 그려진다.

오늘 원침지를 찾아온 황주사는 땅이 생긴다니 자신 같아도 시위 행렬에 맨발로 뛰어가겠다고 거짓으로 말하면서 “토지개혁 법령의 포고문”을 받았을 때의 현기증을 떠올린다. 포고문에서 “살(煞)을 맞은 사람”처럼 새파래져 자신에게 유익한 구절이 하나도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돈’만 알고 살아온 황주사는 일제 때부터 “지주(地主)라는, 재물(財物)의 화신(化身)이었고, 도깨비였기에 진작에 토지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이남

으로 도망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는 조선은행권으로 백원짜리만 삼만여원을 맡아서 명주까지 저고리에 솜과 함께바쳐 가지고 옷을 꾸며 두었다. 약차하면 그옷을입고 피난을갈 심산이다. 그소문은 벌써 이근처에 짝 퍼졌다. 입이 썩 큰며누리가 비밀을 루설한 까닭이다.

그때 황주사가 좀더 궁리를 했다면 땅을 모조리 팔았을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땅탱이가 떠나갈줄은 몰랐다. 천지개벽을 하기전에는 설마그런일이 없을줄 알았든것이, 정말 눈에 안보이는 개벽이 하루밤사이에 이세상을 뒤집어 엎었다.²¹⁾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황주사는 현금을 옷속에 숨겨두고 피난을 떠날 심산을 가지고 있다. “천지개벽을 하기 전”에는 없을 줄 알았던 ‘뒤집힌 세상’을 북한에서 만나게 된 지주의 내면 풍경이 자연스레 포착된 대목이다. 지주인 황주사에게 ‘토지개혁 법령 포고문’은 천지개벽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으로 여겨지면서 월남으로의 피난을 재촉하게 만든 선언문으로 인식된 것이다.

황주사는 토지개혁 포고문을 펴들고 보면서 “지주를 유지신사(有地身死)라 한다면 자본가도 유지신사(有地身死)”라면서 “돈 가진 놈과 다 같이 죽어야 한다”는 절망적 현실을 감지하게 된다. 그러다 지주와 자본가라는 ‘두 유지신사’가 두 마리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다가 떨어져 죽는 환상 속에서 그 ‘추락하는 용’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체감하게 된다. 결국 악덕 지주와 자본가가 ‘북한’에서는 몸 붙일 공간이 없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작가는 해방 직후 토지개혁을 집행하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지주의 내면 풍경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셈이다.

21) 리기영, 『開闢』, 『문화전선』, 문학예술출판사, 1946. 7, 178-179면.

3) 소작농 원침지의 소심한 내면 풍경

시위 행렬에 참가하지 않은 원침지는 쁘신을 삼는다는 핑계로 혼자 집에 남아 있다가 황주사를 마주한다. 열 살 아래인 아내와 3남매인 동수와 동운이, 언년이 등이 시위에 가겠다고 나섰지만, 원침지는 ‘의심과 조심성’으로 “열찍은 마음”이 들어 선뜻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며칠 전 지주인 황주사가 평양 임시정부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면서 세상이 또 한 번 뒤집힐 것이라고 단언했기 때문이다. 황주사는 ‘해외 임시정부’가 들어왔다면서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이 꾸미는 ‘중앙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평양 정부’의 일이 헛일이 될 것이라고 성내며 말했던 것이다. 이렇듯 원침지는 급변된 현실에 대한 반신반의 속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지닌 입체적 인물로 그려진다.²²⁾

저녁에 들어온 자식들이 이제 땅이 생기고 올해부터 쌀밥을 먹게 된다고 좋아하고, ‘언년이’는 농민이 토지에서 해방되듯 여자도 가정에서 해방돼야 한다고 말한다. 여자도 회의에 참여하고 대통령을 뽑을 때 표를 써 낼 수 있다고 덧붙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침지는 낮에 황주사와의 일을 전하면서 “모두 다 희한한 일”이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황주사가 ‘옹색한 일’이 있다면서 200원 이자에 대한 5푼 변의 ‘변리’는 그만두고 ‘본전’이나 금명간에 해주기를 당부하자, 원침지는 5일 안에 갚겠다고 약조한 것이 떠오른 것이다.

농민위원장이 지나가는 길에 원침지네에 들러 이제는 다 같은 인민이라면서 “압제를 줄 놈은 누구며 압제를 받을 놈은 누구냐”면서 평등한 세상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황주사에게 200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전한다. 오히려 손해를 볼 뻔했다면서 “소작인이 지주한테 빚으로 쓴 돈은 갚지

22)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수령을 역사의 이상적 종언의 ‘필연’을 담지하는 존재”로 형상화했다는 연구자의 지적은 재고되어야 한다.(이인표, 앞의 글, 268면.) 김일성의 형상은 원경으로 물러나 있는 존재로 작품 속에서 흐릿하게 포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리는 법률”이 났다면 “값으면 되려 법률 위반”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원침지는 필쩍 뛰면서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농민위원장의 말을 부인한다. 하지만 농민위원장은 지주와 왜놈들에게 두 군데씩 소작료를 빼앗겼기 때문에 해마다 헛농사를 지었던 것이라고 전한다. 그러자 원침지는 그제서야 “이거야말로 천지개벽이야!”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지주인 황주사와 소작농 원침지의 ‘천지개벽’에 대한 인식은 처음에는 동일하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급적 입장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게 포착된다. 즉 지주인 황주사는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야 하는 입장이 되고, 소작농인 원침지는 새로운 세상의 주인으로 우대받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이후 마을에 농촌위원회를 조직하게 되면서, 원침지가 제일 가난한 빈농이라서 면 농민조합 준비위원회 7인 위원 중의 1인이 된다. 처음에는 “마치 죽을 죄를 저지른 사람이 살려달라고 애걸하듯 벌벌 떨”면서 ‘비굴한 태도’로 거절하지만 농민위원장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된다면서 권유하자 감투를 쓰게 된다. 농촌위원회의 구성은 농민의 새싹을 틔우는 온상(溫床)이자 토대로 인식된다. 작가는 “자연의 법칙은 인간 사회에도 적용된다.”면서 “대지에 새봄이 오는것은 마치 정의(正義)의 대군(大軍)이 불시에 몰려들어 적진을 도륙 하는것처럼!” “제이차 세계대전에서 런합국의 승리는 팻쇼의 폐허(廢墟) 위에 인민의 씨를 뿌리”(196면)였다면서 위대한 인간의 새봄에 ‘인민의 꽃’과 ‘인민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는 시대 현실을 요약한다. 작품은 농촌위원회 모임에서 원침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황주사가 간밤에 이남으로 솔가도주(率家逃走)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황주사를 비웃으며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었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된다.

이기영의 『개벽』은 인물들의 개성적 성격을 입체적으로 포착하면서 해방기 북한 사회의 풍경을 현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작에 해당한다. 지주 황주사의 불안감을 위시한 내면 풍경에서부터 새로운 세

상에 대한 원점지의 불안과 기대를 유동하는 소심한 내면 풍경, 원점지의 아내와 두 아들과 딸, 농촌위원장 김영감 등이 실감나게 자신의 처지와 조건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학 문학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작품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토지개혁’이라는 북한의 ‘개혁 정책’을 둘러싼 계급적 입장 차이와 개인적 시각 차이가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3. 부정적 인물의 이중성 포착

-리북명의 「로동일가」(『조선문학』 특대창간호, 1947. 9)

1) 노동자들의 건강한 휴식 풍경

이북명의 단편소설 「로동일가」는 동시대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주로 받지만, “그 주제가 주는 강한 힘에도 불구하고 형상력에 있어서는 많은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²³⁾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문학의 최선봉”²⁴⁾이지만 단편보다는 장편소설에 적합한 구조였다는 비판도 받는다. 물론 대체적으로 문학사에서는 “전변된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여 새로운 창조적로동의 주제를 탐구”²⁵⁾한 대표적인 소설로 평가된다. 특히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장엄한 증산투쟁과정에 로동자들 속에서 발휘되는 높은 헌신성과 애국심, 집단주의정신을 보여주면서 그와 대조적으로 낡은 사상 잔재와 생활인습이 극복되고 생산에서 새로운 혁

23) 홍순철, 『해방후 4년간 문학예술의 총화와 금후 발전을 위하여』, 『문학예술』, 문화전선사, 1949. 8, 23면.

24) 윤광, 「작가와 현실」, 『문학예술』, 문화전선사, 1948. 2, 33면.

25) 오정에·리용서, 『조선문학사10-해방후편(평화적민주건설시기)』, 사회과학출판사, 1994, 31-32면.

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새 조국 건설로 들끓는 해방 후의 약동하는 현실과 노동속에서의 새 인간의 탄생을 강한 현실공정의 기백으로 잘 형상²⁶⁾한 작품으로 고평된다.

해방 직후 선반공장 노동자들의 증산경쟁 풍경을 중심으로 창작된 이 복명의 단편소설 『노동일가』는 2백 명 정도가 수용가능한 넓은 공간인 ‘건국실 겸 식당’이 “지금 인민학교 아동교실처럼 잡담과 웃음으로 한창 꽃을 피우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면서 흥겨운 노동자들의 분위기에 초점을 맞춘다. ‘털털이’ 정반공인 문삼수가 말더듬이임에도 노랫가락과 〈양산도〉가 명창인데다가 남의 연설이나 표정 동작을 흉내내는 신통한 재간을 가지고 있는 친구로 묘사되면서 선반공장 노동자들의 휴식시간의 풍경이 그려진다. ‘명랑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건국실의 휴식 풍경이 포착되고, “증산 경쟁에 일부일초를 아껴가면서 돌격을 감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식후에 태우는 담배가 ‘활력소’이자 ‘진미’로 느껴지면서, 노동자들의 표정에는 “무한한 행복과 희망의 빛”이 드러나는 것으로 그려진다.

남쪽 유리창우에 맑스 레닌 김일성장군 쓰딸린대원수의 순으로 초상화가 나란이 걸려있고 바로그밑 유리창과 유리창새의 벽에는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자. 새로운 과학지식으로 무장하자. 기술을 배우자. 무식은 파멸이다.”

라는 표어와

“우리는 없는것은 새로 창조하고 부족한것을 부족한대로 모든 곤난과 장애를 이를 악물고 뚫고나가야 살수있고 새로운 부강한나라를 세울수있다.”

라는 우리의 영명하신영도자 김일성장군의 말씀이 붙어있다.²⁷⁾

26) 오정애·리용서, 앞의 책, 163면.

27) 리복명, 『勞動一家』, 『조선문학』 창간특대호, 문화전선사, 1947. 9, 5면.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해방기 당시에는 ‘마르크스, 레닌, 김일성, 스탈린’의 순서로 초상화가 걸려 있는 모습에서 북한 사회의 물모델적 지도자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작품 도입부부터 ‘배움’과 ‘과학지식의 무장’과 ‘기술의 습득’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부강한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영명하신 지도자” ‘김일성 장군의 말씀’을 앞세운다는 점에서 해방기 초기에 이미 김일성 중심의 지도체제가 확립되어 있음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이어서 후반에는 선반공장에 부과된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 2/4분기의 책임수치가 커다랗게 표시되어 있고, “생산은 건국의 토대”, “기술은 노력자의 무기다!”라는 표어가 벽마다 붙어 있으며, 170명 정도의 선반공장 노동자들의 의복장이 놓여 있고, 벽보판에는 <속보>와 <직장소식>, ‘벽소설’ 등이 붙어 있는 풍경이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1시간 동안의 휴식시간에 노동자들이 “명랑 유쾌한 휴식 광경” 속에 1947년도 인민경제의 승리를 약속하면서 오후의 증산돌격전을 다짐하는 적극성이 그려지는 것이다. 건국실 내부만이 아니라 건국실 바깥에서도 휴식 광경으로 선반공들의 씨름 경기가 벌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발리볼과 캐치볼을 하면서 탄력 있는 노동자들의 소리들이 넘쳐나며, 4월의 해풍이 노동자들에게 강심제가 되어주는 풍경이 포착된다.

특히 “씨름하고 독서하고 운동하고 농담하는 태도”와 “그 일거일동에도 진정 조선인민의 공장에서 인민의 행복을 약속하면서 증산전에 돌격하고 있는 영예스러운 자기들이라는 감출수없는 환희와 프라이드가 어느동무의 얼굴에도 아롱지고 있다.”면서 “믿음성있는 얼굴들”과 “탐스러운 그 기계들”이 강조된다. 공장노동자들이 ‘증산경쟁’에 임하면서도 건강한 휴식을 즐길 줄 아는 긍정적 인간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국가의 동력이라는 자부심이 노동자들의 얼굴에 ‘환희와 프라이드’로 아롱지고 있다는 묘사가 해방기 공장의 풍경을 보여준다. “믿음성 있는 얼굴들”과 ‘탐스러운 기계들’이 새로운 북한사회를 주도하는 노

동계급의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다.²⁸⁾ 이러한 긍정적인 해방기 공장 풍경의 묘사가 이 작품을 ‘평화적 민주건설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것이다.

2) 부정적 인물 달호의 심리적 동요

하지만 이러한 희망적인 풍경과는 다른 문제적 인물로 부정적 인물 이 달호가 포착된다. 달호만은 “웬일인지 우울한 표정으로 긴 의자에 혼자 앉아 있”고, 건축실 안팎의 명랑한 분위기와 상관없는 “싸늘한 표정”으로 묘사되면서 “이기구 말테다.”라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으로 그려진다. 달호는 정해진 휴식 시간의 규칙을 어기고 이기적이게도 동료들보다 17분 앞서 선반공장으로 향하면서 “쓸쓸한 고독감”에 사로잡혀 ‘이기고야 말겠다’고 다짐한다. 더구나 “땀살스러운 고독감”을 박차버리듯 선반기를 응시하면서 달호는 ‘어떻게 하면 빨리 깎아낼까’를 고민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예전에는 “생명 있는 동물의 규율적인 아름다운 집단”처럼 여겨지는 선반공장의 ‘현대적 기쁨’에 반한 달호였지만, 최근에는 선반기의 매력이 잘 느껴지지 않고 짜증이 날 때가 많다. 초조한 분위기로 갈팡질팡하면서, “선달그믐날 빗쟁이한테 즐리우는 안타까운 마음 또 미운 것을 때려부쉬 보고 싶은 을습뚝하는 감정.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암만 기를 쓰고 뛰어도 앞에 선 놈을 따라갈 수 없는 애타는 심경”이 달호의 착잡한 심경으로 포착된다.

달호는 현재 김진구와의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강직한 일념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다. ‘학습이나 창의성’, ‘노동교육이나 우정’도 잊어버린 채 오

28) 이러한 대목에 대해 “노동문학을 프로파간다 담론으로써 도구화한 점”을 비판하는 논자도 있다.(김현생, 앞의 글, 105면.)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선전선동을 위한 작위적인 풍경으로 읽히기보다는 일제의 착취로부터 해방된 노동자들의 건전한 휴식 시간 풍경을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사적 장치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로지 승리에만 정신을 쏟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야 말겠다”라는 말투는 위험성을 내포한 언사로서 경솔한 작업 태도를 배태할 염려가 있지만, 달호는 제품의 질적 향상이 아니라 양적 증산에만 편중하고 있다. 결국 두 번 깎아야 할 것을 단번에 깎아버리자는 달호의 무리한 욕심이 바이트 끝을 부러뜨리는 사고로 이어진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달호에게는 두개의마음이있다.

진정 건국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기술을 받치겠다는 마음과 또하나는 안락한생활과 보다 유리한조건을 찾아서 동요하는 마음이다.

그 실례로서는 금년 이월에 달호는 고향인 풍산에 갔다오겠다고 핑계하고 그길로 단천, 성진, 청진등지로 돌아다니면서 보다 유리한 생활조건을 찾았다.

그러나 결국 그 구상(構想)은 실패에 돌아갔다.²⁹⁾

인용문은 북한문학의 인물 형상화에서 반드시 살려써야 할 대목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인용문에서 달호는 ‘두 개의 마음’을 가진 것으로 그려진다. 하나는 ‘건국을 향한 충심’이지만, 다른 하나는 ‘안락한 생활’을 향한 동요의 심정이다. 그리고 실제로 ‘유리한 생활 조건’을 찾아서 방황했던 과거가 요약적으로나마 드러난다. 하지만 1947년 이래로 ‘고상한 사실주의’를 강제하면서 고상한 인간의 긍정적 형상을 포착하는 것을 위주로 당문학적 도식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심리적 동요는 제거되어야 할 ‘소부르조아적 심상’이 되어 ‘반동적 부르주아 사상’이나 ‘퇴폐 미학’의 일환으로 호명된다. 하지만 이북명의 『노동일가』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인물의 심리적 동요가 사실적으로 포착되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 내적 리얼리티의 생동감을 보여준다.

물론 작품 속에서는 “옳지 못한 마음”이 달호에게 큰 해독을 주었으며,

29) 리북명, 『노동一家』, 『조선문학』 창간특대호, 문화전선사, 1947. 9, 25면.

달호의 기술에 발전이 없었다는 것으로 서술된다. 하지만 달호는 경쟁이 시작된 이튿날부터 미리 기계를 돌리면서, 침착성을 잃고 선반기와 씨름을 시작하는 등 이기적 존재로 그려지는 소중한 캐릭터에 해당한다. 부정적 인물인 달호는 삼각 경쟁과 개인 경쟁을 분리시켜 해석하면서 “삼각경쟁에 저도 개인경쟁에는 이겨야 한다”는 모순된 해석을 가지면서, 경쟁 상대인 친구에 대해 점점 이기고 극복해야 할 ‘적’이자 ‘야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더구나 달호는 “47년도 1년간에 자기에게 부과된 책임량만 달성하면 명년부터는 생각이니 개인이니 하는 시끄러운 경쟁도 없애고 안정된 마음으로 제 마음 나는 대로 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존재로 그려진다. 이러한 대목과 인물 형상화는 긍정적 인물의 형상화에만 치중하는 ‘주체문학’에서 친구처럼 고상한 신념의 화신만 그려낼 것이 아니라 달호처럼 부정적 마음의 동요를 자연스레 포착함으로써 입체적 인간의 다면적 욕망을 자연스레 드러내는 형상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3) 고상한 신념의 노동자 친구의 평면적 내면 풍경

달호와 달리 긍정적 주인공으로 그려진 친구는 우울한 모양의 달호를 발견하고 아프냐고 묻지만 달호는 괜찮다고 답변한다. 친구는 달호가 자신과의 경쟁을 시작한 이후 태도가 달라졌다면서 작업에는 가장 열성적이지만 방법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요체는 “사상적 무장”이라면서, “파쇼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를 즉살시켜버린” 소련 인민들의 강철같이 “단결된 애국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가 속한 선반 공장은 ‘주철공장’과 ‘단조공장’을 상대로 “책임량을 초과 달성할 것과 출근을 제고와 직장 청소”를 내세우고 ‘삼각경쟁’을 벌인다. 해방기 초기에 북한사회에서 노동자의 핵심 화두가 단결된 애국심과 ‘증산의 달성’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삼각 경쟁을 통해 건국정신을 함양하고,

생산의 질적 향상과 양적 풍부함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다.

진구는 치밀한 주의력과 용의주도한 태도를 지닌 캐릭터로서 보통학교 4학년만 나왔지만 선반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학습하면서, “무식은 과멸”임을 명심하고 아들 수돌이가 배운 것을 함께 복습하며 아내에게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진구는 “위대한 영도자이며 수령인 스탈린 대원수 영도 아래 자라가고 있는 소련 인민의 단결되고 조직된 애국심과 초인적 건설 의욕”을 배워야 한다고 다짐한다. 뿐만 아니라 “조선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 김일성 장군에게 만강의 감사를 올”리고, 토지개혁 실시와 더불어 “20조 정강이 발표되고 산업국유화법령, 노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 그 밖에 모든 민주법령이 발표되고 과업이 내릴 때마다 김일성 장군의 명철하신 영도력”에 감탄하며, 가슴 속에서 ‘건국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느낀다. 결국 진구는 47년도 인민경제계획의 책임 숫자를 초과달성함으로써 정신과 기술과 창의성을 조국 창건을 위해 사용하면서 김일성 장군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³⁰⁾

진구는 ‘주철공장, 단조공장과의 삼각경쟁’과 ‘달호와의 개인 경쟁’ 이외에도 ‘가정의 삼각경쟁’을 내세운다. 가정의 삼각경쟁에서 진구의 책임량은 4월 그믐날까지 주택 주위 청소, 집 뒤 2백 평 황무지에 강냥씨, 얇은 당콩씨, 봄배추씨 뿌리기이고, 인민학교 4학년생인 아들 수돌은 학기말 시험에 우등하는 것이 과업이며, 진구는 그런 아들을 김일성대학에 보내고 말겠다는 철석 같은 결의를 가지고 있다. 아내의 책임량은 능력천 개 수공사에 15일 동안 무보수 애국 노동에 참가하되 매일 평균 150% 능력을 올리는 것이다. 진구는 아내의 애국열을 보면서 아내를 좋은 경쟁자의 한 사람으로 인식한다. 더구나 아내 ‘이귀인순’은 일 잘하는 모범여성으로

30) 이러한 진구의 형상은 한 연구자에 따르면 ‘교양되어 있는 모범’의 형상으로 평가된다.(최강미, 앞의 글, 115면.) 하지만 모범적인 선구자이긴 하지만, 교양이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하고 학습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노동 주체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소문이 나서 소련의 유명한 탄광 노동 영웅인 ‘스타하노프’에 빗대어 ‘여자 스타하노프’라고 불리운다.

이렇듯 작품 제목 ‘노동일가가 표상하는 ‘진구네 가족’은 긍정적 인간형으로 포착된다. 복잡다단한 내면의 입체성이 거세된 채 지도자와 국가계획을 실현하고 초과달성하려는 애국적 충심을 지닌 평면적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갓난아이의 죽음에 대한 탄식’이라든가 ‘배움을 둘러싼 갈등, 부부의 의견 충돌 등이 충분히 있을 법하지만 전혀 포착되지 않은 채 국가주의적 신념의 화신으로만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문제적이다.

4) 도식적 결말

진구와 달호의 경쟁에 대한 중간 심사가 열리는데, 뜻밖에 심사 결과로 진구가 승리한다. 계장인 한 동무가 100%의 능률을 올리지 못한 진구가 100% 이상의 능률을 올린 달호에게 승리했음을 발표한다. 달호가 바이트를 4번 분질렀으며, 얼룩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옳지 못한 경향, 즉 하나는 개인만을 위한 경쟁이었다는 점과 또 하나는 양에만 치중했던 경향을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달호는 건국을 위한 마음의 무장이 박약하다는 점과 ‘계획성, 창의성, 기술연구를 등한시했다’고 지적된다.

반면에 진구는 선반기 분해 소재로 인해 100% 능률에는 더뎠지만 작업상에 실수가 없고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제품을 생산한다. 직맹 초급단체 위원장인 최 동무가 등단하여 진구처럼 “생기발랄한 민주 조선 건국정신”의 무장과 사상 개혁과 학습의 필요, 건국정신 총동원 기술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자 이어서 등장한 달호는 갑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지나치게 작위적인 대목이다.

이달호는 얼굴을 무릎짤에 파묻고 앉아서 자기잘못을 뼈가 저리도록 뉘우치는 것이었다.

기술적으로 학습적으로나 또는 인간적으로 김진구보다 자기가 멀리 뒤떨어져 있다는것을 이달호는 비로소 깨달았다. 깨닫는동시에 아무 준비도없이 일시적 혈기와 개인적 야심에 못익여 저돌적(猪突的)으로 김진구에게 도전한 자기의 어리석음을 생각할 때 천길만길 땅구멍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현훈증을 느꼈다.³¹⁾

이 작품에서 가장 서사적 형상력이 미흡한 대목이다. 갑자기 달호는 5분 동안의 발언권을 간청한 뒤, 자신의 '다른 마음'에 대한 반성을 진행한다. 그리하여 한 동무와 최 동무의 지적을 옳은 지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학습을 게을리했으며 개인적 야심으로 경쟁을 했다고 자기 비판한다. 더불어 앞으로는 많이 배우고 학습하고 기술을 연마해서 계획성 있는 작업으로 책임량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모두가 달호의 솔직한 자아비판에 박수를 보내고, 달호가 친구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리고 동무들이 달호에게 감격과 격려의 박수를 길게 보내준다. 친구가 "김일성 장군 만세!"를 선창하고 달호가 따라 외치면서 동무들도 만세를 제창하는 등 두 사람이 펼쳤던 '증산 경쟁은 '아름다운 종결'로 정리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급한 결론과 작위적인 마무리는 지나치게 도식적인 결말의 인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집으로 돌아온 친구는 모범 노동자로 5.1절에 표창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수돌이 조밥을 짓고, 아내도 여성동맹에서 5.1절에 상을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소련 군대의 덕분으로 조국을 찾고 김일성 장군 덕택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면서 친구는 앞으로 열심히 일하자고 다짐한다. 친구는 수돌이에게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하면서 노래를 들을수록 김일성 장군의 위대함이 뼈에 사무치고, 건국

31) 리복명, 『노동一家』, 『조선문학』 창간특대호, 문화전선사, 1947. 9, 84면.

을 위한 결의가 용솨음치는 매력의 노래라고 평가한다. 친구가 정말로 좋은 노래라면서 “참으로 좋은 세상이 왔다”고 감격에 넘친 어조로 중얼거리면서 작품이 마무리된다.

이렇듯 이북명의 단편소설 『노동일가』는 작가의 흥남지역 공장 노동자 경험을 바탕으로 달호와 친구의 증산 경쟁을 핵심 모티프로 전개하면서 친구네 일가를 중심으로 해방 직후 1947년 북한의 인민경제 계획을 달성하려는 노동자 계급의 헌신성과 단결된 애국심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고평하는 ‘고상하고 헌신적인 인간형’으로서의 친구네 가족보다 ‘부정적 인물인 달호의 동요하는 심리’가 생생한 리얼리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수작이라고 판단된다.

4. 긍정적 주인공의 심리적 동요 형상화

-리태준의 「첫 전투」(『문학예술』, 1948. 12)

1) 미학적 평가의 양면성

이태준의 「첫 전투」는 1949년 발표 당시에는 호평을 받는다. 소설 분과에서 제3심에까지 올랐던 작품으로서 “1949년도 작단에 있어 성과있는 계열에 속하는 작품들”³²⁾ 중의 하나로서 “1948년 축전 입상당선 작품들보다 오히려 우수한 수준의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당문학의 기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남한에서의 빨찌산 투쟁’을 형상화함으로써 “선전선동 대열에 가담”³³⁾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53년 ‘반종파 투쟁’ 이후 이태준이 반동작가로 낙인찍힌 이래

32) 안함광, 「1949년도 8.15 문학예술 축전의 성과와 교훈」, 『문학예술』, 문화전선사, 1950. 2, 15면.

33) 유임하, 앞의 글, 15면.

로 그의 모든 작품이 문학사에서 배제된다. 특히 『첫 전투』의 중심사건이 “부락의 반동 분자를 처단하기 위한 군중재판의 장면”이라면서 “반동 분자의 반역적 죄행에 대하여 빨찌산 대장이 폭로하고 그 처단에 대하여 군중의 의사를 물었을 때 군중은 처단에 대하여 요구할 대신에 침묵하며 반동 분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무죄에 대하여 변호하는 아우성만이 높아가”는 이야기로 날조되어 있고, “빨찌산을 인민들이 지지하지 않고 반대로 반역자를 지지한다는 내용”³⁴⁾을 형상화했다고 비판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장면은 오히려 ‘인민재판’을 바라보는 군중의 표정을 개연성이 살아있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의 리얼리티를 생동감 있게 포착하고 있는 대목에 해당한다.

그러나 『첫 전투』는 엄호석의 인상 비평적인 비판만이 아니라 신예 작가인 황건으로부터도 문학적 형상력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된다.

소설 『첫전투』는 용감하고 역세고 락천적인 투사들인 빨찌산들의 이야기라기보다 애상적인 ‘판돌’이와, 그의 대원들의 장송곡이며, 당의 지시를 수행하는 길에서의 자기 목숨의 아까움에서 하는 통곡이며, 보다 더 ‘자기 목숨 달아나는 위험도 모르고 장난감 찾듯 총만 찾는’ ‘철이 없이 이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왼쪽이나 나선 듯이 팔랑대는’ ‘애처로운’ 소년 ‘세제’에 대한 런던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³⁵⁾

인용문에서 보이는 황건의 비판적 지적은 역설적이게도 북한문학에서 살려내야 할 대목을 보여준다. 즉 ‘애상적인 판돌이’와 ‘대원들의 장송곡’,

34) 엄호석, 『사실주의로 변장한 부르조아 반동 문학』, 『문예전선에 있어서의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을 반대하여(1)』,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99-163면. / 엄호석, 『리태준의 문학의 반동적 정체』, 『문예전선에 있어서의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을 반대하여(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126면.

35) 황건, 『산문 분야에 끼친 리태준 김남천 등의 반혁명적 죄행』, 『문예전선에 있어서의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을 반대하여(1)』,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171-172면.

‘애처로운 소년 셋째’, ‘연민의 이야기’, ‘슬픈 상념’, ‘목숨의 아까움’, ‘당과 개인의 대립’, ‘무의미와 허무의 사상’, ‘통곡의 감정’ 등 ‘적야’가 선명히 구분되는 전투 현장에서 배제해야 될 부르주아적 애상성이라는 지적은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첫 전투에 임하는 빨찌산 대원의 자연스런 감정의 발로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얼리티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대목이 ‘주체문학’에서도 살아남아야 북한문학의 경직성이 극복되고 남북한 통합문학사의 외연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엄호석과 황건 이외에도 “빨찌산들의 강의한 투쟁 모습에 회색칠을 하기 위하여 애련한 소년 셋째를 등장시키고 독자들에게 눈물을 강요했으며, 그 밖의 단편과 오체르크들에서 영탄과 절망의 감정을 부식하려고 하였다.”³⁶⁾는 비판과 “빨찌산 투쟁과 인민들의 련계를 외곡”시킨 작품으로 독자 대중의 격분을 일으킨 “극악한 반동 작품”³⁷⁾의 하나라는 등 비난을 받음으로써 이태준과 그의 작품은 문학사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더구나 이러한 날선 비판과 배제가 ‘1948년 원본’에서 드러난 “유격대 활동에 대해 소극적인 작가의 시각”을 수정하여, ‘1949년 개작본’에서 “당정책에 대한 선전과 계몽이 중심”을 이루도록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기습작전에 성공하는 것으로 조정”³⁸⁾하여 단행본 『첫전투』에 수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북한에서의 문학과 정치의 통합이 낳은 비극적인 문학적 거세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36) 김명수, 『반동적 부르주아 작가들의 반혁명 문학 활동의 죄행』, 『문예전선에 있어서의 반동적 부르주아 사상을 반대하여(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61면.

37) 윤세평, 『「농토」와 「호랑이 할머니」에 대하여』, 『문예전선에 있어서의 반동적 부르주아 사상을 반대하여(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236-237면.

38) 강진호, 앞의 글, 190면.

2) 대장 판돌이의 심리적 동요

이태준의 『첫 戰鬪』은 1948년 5월 빨찌산 부대의 이동을 그리면서 “이번 단선투쟁에 우리 춘천기관구에서 두 몇동무가 또 잡혀갔을 거다”³⁹⁾라는 대장 판돌이의 생각을 중심으로 작품이 시작된다. 거점으로 이동 중에 대장 권관들은 2년 전인 1946년 10월항쟁 때 헤어진 춘천기관구 열성분자 동무들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리고 감기에 걸린 셋재는 판돌이를 형님으로 부르는 아직 어린 소년인데, 기관구에서 함께 일하던 경수의 아우다. 10월인민항쟁 때 붙잡혀 유치장에 갇혔다가 탈옥하던 경수가 다시 붙잡혔고 아내를 통해 아우인 셋재를 동무인 판돌이에게 부탁해 보낸 것이었다. 오후 4시에 닿을 예정인 최후의 잠복거점으로 향하면서 8명의 대원 모두 긴장해 있지만, 판돌이는 소중한 목숨을 당과 일과 지시를 위해 아낌없이 바쳐야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철공 노동자 황동무, 농촌 출신 남동무, 춘천에서 판돌이와 철도 파업을 함께 겪은 매부리코 기관사 장동무, 학병 출신의 의사 아들 윤동무, K군 S면지구에서 테러 반격을 당해 앞니가 부러진 농촌출신 서동무, 꼬맹이 셋재, 말없는 지도부 연락원 심동무 등 8명이 거점으로 이동 중이다.

최후의 잠복 거점에 5월 21일 5시가 지나 도착한 판돌이 일행에게 40대 지도부 동무 한 사람이 다가서면서 5월 23일 새벽 1시가 공작 날짜와 시간임을 전하자, 판돌이는 당황해한다. 시간이 촉박하여 무리라고 판단하지만 지도부 동무는 상황의 급박함을 들면서 설득한다. 그때 지도부 동무의 불안하냐는 반문에 판돌이는 대답을 회피한다. 대답을 한다면 ‘불안합니다’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불안하시오?”

39) 리태준, 『첫 戰鬪』, 『문학예술』, 문화전선사, 1948. 12, 137면.

판들은 눈을 감은채 대답하지 않았다. 척후동무들을 기다려 그들의 정찰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들을 앞세고 나가서도 지형조건을 내눈 내발로 충분히 익히어 어떤 경우에든지 행동에 임기응변할 자신이 서야만 동무들이 목숨을 맡기고 나서는 일을 앞장설수 있는 것이었다. 아모리 지도부에서 책임지운 우리편 동무라 하더라도 처음 만나는 남의 말로만 내아모런 눈짐작 없는 환경에 뛰어들어 철두철미 계획적인 행동이여야 할 기습전투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판들은 대답을 한다면 솔직히 “불안합니다”밖에 나올 수 없었다.⁴⁰⁾

인용문에서 보이듯 판들은 불안하냐는 지도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서 고민하는 내면이 그려진다. 지도부 동무의 조급한 기습 전투 지시에 대해 회의하면서 정찰 보고와 지형 조건을 익힌 이후에 행동에 나서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대장의 판단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듯 ‘계획적 행동과 기습 전투’가 보장되지 않는 전투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는 대장 판들의 신중한 성격이 이 작품의 핵심 서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결국 “쏘련군대가 드러온 북조선에는 착취없는 로동제도가 실현되었다! 남의땅 아닌 농사들이 실현되었다! 북조선은 조선인민의 조선으로 발전하며 있지 않은가?”를 떠올리며 지시대로 결행하겠다고 지도부 동무에게 대답한다. 노동 제도의 개선과 경자유전의 실현 속에 ‘인민의 국가로 ‘북조선’이 발전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지시를 실행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들은 “유격전이라고 반듯이 불안 없는 싸움만은 아닐거대. 다만 우리는 경험 없는 첫공작이기 때문에”라며 한참을 궁리한다. 고민 끝에 판들이 지금이 영웅적인 임무를 수행할 고귀한 시간임을 강조하지만, 윤동무는 조급하지 말자면서 흥분과 용감을 혼동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판들은 당이 결정해 놓은 것을 실천해야 한다면 서 윤동무를 설득하고, 첫 전투를 위해 지소로 달려간다.

40) 리태준, 『첫 戰鬪』, 『문학예술』, 문화전선사, 1948. 12, 150면.

판돌이 먼저 돌을 지소에 집어던진 뒤 ‘첫 전투’가 시작되고, 판돌은 지소에서 날아온 카빈총 탄환에 왼쪽팔을 맞아 부상을 입는다.

판돌은 목이 타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는 돌에 맞고 튀는 탄환에 총검(銃劍)으로 급혀대고 있던 왼쪽팔을 맞은 것이다. 탄환은 열게 박힌 듯하나 출혈을 막기 위해 허둥지둥 팔을 붕대로 감고 나니 손이 떨려 총에 탄환장전이 제때로 되지 않았다. 훗들 훗들 탄약이 탄창에 가 박히지 않는다.

(침착하자! 동무들이 부끄럽지 아느냐?)

그러나 딱 말러버린 목소리처럼 손도 그저 말을 듣지 않는다. 적탄에 속구치는 흙이 머리에 와 외수수 쏟아진다. 무슨 풀인지 뜯어 입에 씹을 때 이 셋재가 나타나준 것이다. 셋재는 날새게 기여들어 십연발 탄환을 다시 재어주었다. 판돌은 피흐르는 팔을 다시 총침으로 고이고 불을 계속해 뿜기 시작했다.⁴¹⁾

인용문에서 판돌이는 탄환에 맞은 이후 붕대로 팔을 지혈하면서 ‘침착’을 강조한다. 그리고는 대장으로서 동료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다시 총관을 부여잡고 총을 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렇듯 전투 상황 속에서도 판돌의 내면이 포착되면서 이 작품은 주인공 판돌의 의지와 당위만이 아니라 심리와 불안이 함께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수작이라고 볼 수 있다. 판돌은 남동무에게 총상을 입은 셋재를 맡으라며 퇴각 신호를 보내고, 후퇴를 하면서 수류탄이 모두 시효 지난 것이라 터지는 것보다 안 터지는 것이 많음을 안타까워한다. ‘불발 수류탄’의 문제나 ‘총상 입은 판돌’의 의외어나 상황을 둘러싼 심리적 불안 등의 내면 묘사는 첫 전투에 임하는 유격대 대장의 입체적 성격을 자연스레 보여준다. 물론 결론(실패와 승리)이 다른 두 개의 판본이 존재하면서, ‘남로당의 유격전술에 대한 부

41) 리태준, 『첫 戰鬪』, 『문학예술』, 문화전선사, 1948. 12, 170면.

정적 입장(원작)과 공식적인 당문학 노선과의 타협(개작본)이라는 이중성이 보이지만, 두 판본 모두 ‘몰락의 정서’와 ‘멜랑콜리’라는 이태준 특유의 회의적 전망을 암시한다는 점⁴²⁾에서는 대동소이하다.

3) 장동무와 서동무의 인민재판 장면의 개연성

한편 망을 보던 서동무와 장동무는 ‘친일파이자 미제의 하수인’인 정운조의 집을 치기로 모의하다가 정운조의 오토바이를 쓰러뜨리고 정운조를 체포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를 정운조네 사랑의 독촉지부 간판이 달린 기둥에 묶은 뒤, 인민재판정을 연다. 서동무는 정운조가 반탁운동을 하고 ‘리승만과 김성수, 미제의 하수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동무인 강중복을 총으로 쏘 죽인 사실을 열거한다. 하지만 ‘반역자의 처단’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그때 판들은 동료들에게 냉정히 신속하게 처단하라고 말한다. 그러자 서동무는 “저 친일파요 민족반역자요 매국노 리승만 김성수의 주구요 무고한 인민의 자제를 죽이고 인민의 집을 불질른 정운조놈을 우리 조선인민들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라며 직접 처단한다.

이후 퇴각하면서 판들은 악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나오게 한 뒤 총상을 입은 셋재의 입에 물려준다. 그제서야 의식을 차린 셋재는 총을 찾아주고는 빙그레 웃는다. 판들은 서동무와 장동무의 손을 잡으며 승리에 커다란 보탬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시키지 않은 일에 뛰어난 것은 지적을 받아야 하며 처단이 신속하지 못해서 만약 적의 역량이 강했다면 도리어 포위당하고 봉변을 당할 뻔했다고 비판한다. 이후 판들은 빨리 지도부에 가 붙어야 한다면서 동무들과 함께 움직이는데, 남동무의 결직한 목청으로 <인민항쟁가>인 “짐승들 요란히 우는 깊은 밤 / 남조선 높은 산 봉

42) 배개화, 앞의 글, 477면.

오리마다 / 기한에 떨면서 용감히 싸우는 / 우리의 형제를 잊지 말어라……”(187면)는 노래를 부르며 이동을 하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된다. ‘남조선’에서 “기한에 떨면서” 싸우는 빨찌산들의 투쟁을 그린 이 작품은 해방기의 남북한 대결 국면과 남한 내부의 좌우익의 갈등 상황을 포착하고 있다. 특히 대장 판들을 중심으로 인물들의 개성적인 목소리가 드러난다는 점과 판들의 심리적 동요와 불안이 자연스레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작품이다.

이태준의 『첫 전투』는 1948년 5월 남한의 5.10 단독선거 이후 강원도의 한 지서를 습격한 유격전을 추적하고 있는 소설이다. 8명의 유격대원이 20명이 중무장한 지서를 기습하고 퇴각하는 내용을 통해 첫 전투에 임하는 대원들의 행군과 함께, 당의 명령 수행과 친일민족반역자 처단 등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대장 판들의 동요하는 내면과 함께 반골 기질의 윤동무, 막내인 셋재의 형상이 자연스럽게 형상화되면서 3일간 펼쳐지는 유격대 활동이 생생하게 포착된 작품이다.

5. 결론

본고는 해방기(1945~1948)에 북한 문예조직의 대표적 기관지인 『문화전선』과 『조선문학』, 『문학예술』에 게재된 단편소설 중 이기영의 『개벽』, 이북명의 『노동일가』, 이태준의 『첫 전투』 등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선별하여 새로운 북한문학의 방향 설정과 함께 북한 문학의 문예이론과 텍스트의 미학적 균열 양상을 분석하였다. 특히 인물의 입체성을 중심으로 북한문학에서 복원되어야 할 대목의 필요성을 논구하였다. 이 작품들은 해방 이후 북한문학에서 최초로 ‘토지개혁’과 ‘증산경쟁’, ‘빨찌산 투쟁’ 등을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북한문학의 소재주의적 대상을 범주화하는 특질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는 인물들의 입체적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개성을 보여준다.

이 시기 북한문학은 '해방기념시집'으로 발간하려던 원산문학동맹의 잡지를 폐간하는 『응향』 사건을 전면화하면서 문학의 미적 자율성을 배제하던 시기이다. 문학적 다양성으로 호명되어야 할 '개인성의 문학'을 '부르주아 퇴폐미학'으로 낙인찍으며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의 걸림돌로 인식하던 당대에 '북문예총'이라는 조직의 이름으로 문학적 개인과 텍스트들이 단죄를 받기 시작하는 것은 '당문학적 시발'의 폐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문학의 이름으로 작가와 텍스트를 엄별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개별 텍스트 속에서는 인물들의 개성적 시각과 목소리를 통해 표층적 의도와는 다른 심층적 진실이 우리나라고 있다. 이 논문은 그러한 목소리를 살려내는 데에 주력하였다.

이기영의 『개벽』은 인물들의 개성적 성격을 입체적으로 포착하면서 해방기 북한 사회의 풍경을 현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작에 해당한다. 지주 황주사의 불안감을 위시한 내면 풍경에서부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원점지의 불안과 기대를 유동하는 소심한 내면 풍경, 원점지의 아내와 두 아들과 딸, 농촌위원장 김영감 등이 실감나게 자신의 처지와 조건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학 문학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작품이라고 판단된다.

이북명의 단편소설 『노동일가』는 작가의 흥남지역 공장 노동자 경험을 바탕으로 달호와 친구의 증산 경쟁을 핵심 모티프로 전개하면서 해방 직후 1947년 북한의 인민경제 계획을 달성하려는 노동자 계급의 헌신성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고평하는 '고상한 애국심과 헌신성을 지닌 인간형'으로서의 친구보다 '부정적 인물인 달호의 동요하는 심리'가 생생한 리얼리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수작이라고 판단된다.

이태준의 『첫 전투』는 '빨찌산 문학의 기원'으로서 1948년 5월 남한의 5.10 단독선거 이후 강원도의 한 지서를 습격한 유격전을 추적하고 있는 소설이다. 8명의 유격대원이 20명이 중무장한 지서를 기습하고 퇴각하는

내용을 통해 첫 전투에 임하는 대원들의 행군과 함께, 당의 명령 수행과 친일민족반역자 처단 등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대장 판들의 동요하는 내면과 함께 반골 기질의 운동무, 막내인 셋째의 형상이 자연스럽게 형상화되면서 유격대의 활동이 생생하게 포착된 작품이다.

이 세 작품의 공통된 특성은 긍정적 주인공들과 함께 부정적 인물들의 심리적 동요를 포착하면서 입체적 성격의 인물로 묘사함으로써 작품의 생동감과 리얼리티를 생생하게 살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주체사실주의’를 지향하는 북한문학에서 살려져야 할 대목으로 판단된다. ‘반동적 부르주아 사상의 잔재’라는 퇴폐 미학의 낙인이 아니라, 복잡다단한 인간의 내면풍경을 정밀하게 탐색하는 문학적 상상력을 복원하기 위해 되살려야 할 인물들의 풍부한 심리묘사인 것이다.

해방기 북한문학은 『응향』 사건’을 거치면서 명백하게 당문학으로 수렴된다. ‘고상한 사실주의’라는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표방하면서 문학적 개인의 목소리는 수면 아래로 찾아들고, 구호로서의 현실을 반영하려는 교조적 리얼리즘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그 앞자리에 북한문학의 미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이기영, 한설야, 이북명, 이태준, 김남천 등의 문학 작품이 전범으로 등장한다. 물론 이태준과 김남천은 ‘미제의 앞잡이’라는 명목으로 1950년대에 숙청되어 ‘반동작가’로 낙인찍히며 문단에서 영구 제명된다. 이기영과 이북명과 이태준의 해방기 텍스트를 함께 고찰하는 것은 북한문학사의 주관적 시각을 남북한 통합문학사의 시각으로 객관화하려는 연구자의 욕망에서 비롯된다. ‘한반도의 문학’이 담론적 배제를 지향하는 ‘빨색의 문학’이 아니라 문학적 다양성의 숲을 공유하는 ‘덧색의 문학’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당위적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기초자료

- 리기영, 『開闢』, 『문화전선』 창간호, 문학예술출판사, 1946. 7.
리복명, 『勞動一家』, 『조선문학』 창간특대호, 문화전선사, 1947. 9
리태준, 『첫 戰鬪』, 『문학예술』, 문화전선사, 1948. 12.

2. 참고자료

- 강진호, 『이태준 소설의 개작 연구 - 해방 후 소설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46집,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9. 8, 187-225면.
김명수, 『반동적 부르조아 작가들의 반혁명 문학 활동의 죄행』, 『문예전선에 있어서의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을 반대하여(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김성수, 『통일문학 담론의 반성과 분단문학의 기원 재검토』, 남북문학예술연구회 편, 『해방기 북한문학예술의 형성과 전개』, 역락, 2012.
김윤식, 『빨치산 문학의 기원』, 『한길문학』 1990. 11, 270-286면.
김현생, 『리복명의 노동문학과 프로파간다의 담론 : 「출근정지」와 『로동일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105-131면.
배개화, 『이태준, 남포당 빨치산 문학의 기원 - 그 미학적 특징과 정치적 논쟁점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71집, 국어국문학회, 2015. 6, 473-503면.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현대문학편』, 사회과학출판사, 1959.(인동, 1988)
안함광, 『북조선민주문학운동의 발전과정과 전망』, 『조선문학』 창간호, 문화전선사, 1947. 9.
안함광, 『1949년도 8.15 문학예술 축전의 성과와 교훈』, 『문학예술』, 문화전선사, 1950. 2.
엄호석, 『사실주의로 변장한 부르조아 반동 문학』, 『문예전선에 있어서의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을 반대하여(1)』,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엄호석, 『리태준의 문학의 반동적 정체』, 『문예전선에 있어서의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을 반대하여(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오정애·리용서, 『조선문학사10-해방후편(평화적민주건설시기)』, 사회과학출판사, 1994.
오태호, 『『옹향』 결정서를 둘러싼 해방기 문단의 인식론적 차이 연구』, 『어문론집』 제48집, 중앙어문학회, 2011. 11, 37-64면.

- 오태호, 『해방기(1945~1950) 북한문학의 ‘고상한 리얼리즘’ 논의의 전개 과정 고찰-『문화전선』, 『조선문학』, 『문학예술』 등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6호, 우리어문학회, 2013. 5, 319-358면.
- 유임하, 『북한 초기문학과 ‘소련’이라는 참조점-조소문화 교류, 즈다노비즘, 번역된 냉전논리』, 남북문학예술연구회 편, 『해방기 북한문학예술의 형성과 전개』, 역락, 2012.
- 유임하, 『월북 이후 이태준 문학과 ‘48년 질서’ - 『먼지』(1950)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39집, 상허학회, 2013. 9, 13-42면.
- 윤광, 『작가와 현실』, 『문학예술』, 문화전선사, 1948. 2.
- 윤세평, 『“노동”과 “호랑이 할머니”에 대하여』, 『문예전선에 있어서의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을 반대하여(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 윤세평, 『해방후 조선문학 개관』, 『해방후 우리문학(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 이인표, 『해방기 북한문학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전행’을 ‘수령의 형상’으로 전유한 방식의 일면 고찰 : 이기영의 고향(1933)과 『개벽』(1946)의 양식 비교를 경유하여』, 『현대문학의 연구』 64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2, 251-283면.
- 최강미, 『교양되는 북조선 - 1940년대 후반 북한소설 『개벽』, 『로동일가』, 『소낙비』에 투영된 근대성 이미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44집, 상허학회, 2015. 6, 91-137면.
- 하신애, 『개혁의 맹점(盲點)과 도덕적 공동체의 부재(不在) - 해방기 북한 문학의 토지개혁 형상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84집, 국제어문학회, 2020. 3, 325-349면.
- 한식, 『노동계급과 문학-5.1절을 맞이하여』, 『문학예술』, 문화전선사, 1950. 5.
- 홍순철, 『해방후 4년간 문학예술의 총화와 금후 발전을 위하여』, 『문학예술』, 문화전선사, 1949. 8.
- 황건, 『산문 분야에 끼친 리태준 김남천 등의 반혁명적 죄행』, 『문예전선에 있어서의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을 반대하여(1)』,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Abstract>

A Study on the Representative Short Storys in
North Korea's Literature Journal during
the Liberation Period(1945-48)

—Focusing on the rigidity and flexibility of character shaping

Oh, Tae-Ho

From the period of liberation to the Korean War, this article analyzed the aesthetic cracks in North Korean literature and text by selecting representative works such as Lee Gi-yeong's "Gaebyeok", Lee Buk-myeong's "Working Family" and Lee Tae-jun's "First Battle" among short stories published in the Korean Writers' Union. In particular, the three-dimensional nature of the characters was discussed as a necessity to be restored in North Korean literature.

Lee Gi-yeong's "Gaebyeok" is a masterpiece in that it captures the three-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haracters and realistically depicts the landscape of North Korean society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It is believed to be a work that can expand the scope of inter-Korean studies and literature. Based on the author's experience as a factory worker in Heungnam, Lee Buk-myeong's novel "Working Family" depicts the dedication of the working class to achieve the North's people's economic plan in 1947 right after liberation, while developing the increased production competition between Dalho and Jin-gu as a key motif. Lee Tae-joon's "First Battle" is a novel that tracks a guerrilla war that has invaded a branch in Gangwon Province since the May 10, 1948

South Korea's independent election. The three-day story of the guerrilla unit is vividly captured as the figure of Yoon Dong-moo and Se-jae as the youngest is naturally portrayed along with the stirring interior of the captain Pandol.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works are that they capture the psychological agitation of the negative characters along with the positive characters and portray them as three-dimensional characters, bringing the vividness and reality of the work to life. And these factors are considered to be the points to be used in North Korean literature, which focuses on Leader-shaped literature and party literature. It is not a stigma of decadent aesthetics called “the remnant of reactionary bourgeois ideas,” but a rich psychological description of the characters that should be revived to restore the literary imagination that scrutinizes complex human inner landscapes.

Key words: North Korean literature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Lee Ki-young, “Gaebyeok,” Lee Buk-myeong, “Working Family,” Lee Tae-jun, and “First Battle.”

투 고 일 : 2020년 10월 29일

심 사 일 : 2020년 11월 24일-1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12월 26일